

한·일·중 콘텐츠산업 공동 발전과 교류 확대 공동선언문 채택

- 12. 7.~8. 일본 도쿄에서 '제16회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2월 7일(목)부터 8일(금)까지 일본 경제산업성, 중국 문화여유부와 함께 '제16회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을 개최했다.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은 3국의 문화콘텐츠산업 현황과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는 협의체이다. 2002년부터 3국이 번갈아 행사를 열고 있으며 지난해 제주도에 이어 올해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했다.

12월 7일(목), 정부 간 회의에서는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의 국장급 인사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콘텐츠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각국 정부 관계자와 공공기관, 협회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로 개척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의 세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토론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3국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공동 발전과 번영 방안을 모색하고, 콘텐츠 창·제작자와 기업 간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16회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콘텐츠 도쿄 2023' 참관, 3국 콘텐츠 기업 관계자 교류회 진행

12월 8일(금), 회의 참석자들은 '콘텐츠 도쿄 2023*' 현장을 참관하고 3국의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 교류회를 열어 발표회와 연계망 구축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3국 기업은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신뢰를 증진해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 * (기간/장소) '23. 12. 6.(수)~8.(금)/도쿄 빅사이트 전시장, (주요 내용) 콘텐츠 제작사·배급사·마케팅 회사·라이선스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콘텐츠 사업 종합전시회
- ** (한국) 수퍼톤, 앰버린, 네이버제트 / (일본) 스튜디오 엔트레, 에이에이치에스(AHS), 메타도쿄, 야마하(YMAHA) / (중국) 따마이(Damai), 퍼펙트 월드(Perfect World),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 등

윤양수 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이번 회의가 3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가는 소중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한류지원협력과	책임자	과장	신지원 (044-203-2381)
		담당자	사무관	이지은 (044-203-2378)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지정브리핑

